# 검단 내 최고입지… 규제 없고 역·숲·학세권 다 갖춰

**분양 하이라이트**

**인천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지난 3일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내방객들이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정연우 기자

**3.3㎡당 평균 분양가 1247만원**
**전용 84㎡ 단일면적 두 가지 타입**
**3면 발코니에 내집 앞 창고까지**

**2024년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계양~서울역 30분대 이동 가능**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올해 마수걸이 아파트 분양단지가 나왔다. 2020년 첫 분양 아파트인 만큼 견본주택을 방문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3일 견본주택을 열고 인천 검단신도시에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1122가구에 대한 분양에 돌입했다. 지난 5월 동양건설산업이 분양한 '검단파라곤 1차' 887가구에 이은 이 지역 두 번째 공급이다.

검단신도시 AA2블록에 지어지는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1122가구 규모다. 그러나 전용 84㎡ 단일면적 두 가지 타입 만으로 구성돼 선택 폭이 좁은 게 아쉽다는 평가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582가구 ▲84B㎡ 540가구다.

**◆ 3.3㎡당 평균 분양가는 1247만원**

분양관계자는 "일반적으로 4인 가구 입주와 전용 84㎡ 선호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247만원이다. 유형별 분양가는 ▲84A㎡ 3억7400만~4억3000만원 ▲84B㎡ 3억7400만~4억3000만원이다. 계약금은 10%며, 중도금(60%) 대출은 이자후불제 혜택을 제공한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차량 10분 거리에 있는 김포 풍무지구의 '풍무푸르지오'의 전용 84㎡ 최근 시세가 5억5000만원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약 1억원가량 저렴하다. 발코니 확장비는 1500만~1550만원이다.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검단신도시가 속한 인천시 서구는 추첨제를 통해 80%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더라도 그만큼 당첨확률이 높다.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분양했던 검단 파라곤 1차에 비해 평균 분양가가 비싸다"라며 "청약하고 싶어 왔지만 1차 파라곤에 이어 이번에도 당첨은 어려울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검단 파라곤 1차 아파트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1188만원이다.

이 아파트는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며, 정당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 2024년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개통**

전용 84㎡ A,B 타입 전시관을 둘러봤다. 거실 폭 7m, 한 눈에 보기에도 넓다는 느낌이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거실과 주방 구분이 거의 없다. 전 가구에 3면 발코니를 적용했다. 드레스룸과 다용도실도 넓게 설계됐다. 여기에 파라곤1차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내 집 앞 창고'를 제공해 유모차와 자전거 등을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이종혁(36)씨는 "거실이 넓게 설계 돼 상대적으로 침실이 좁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러나 입지조건, 교통호재 등을 고려하면 미래 가치가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교통이다. 교통 개발 호재는 이 지역 핵심 호재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에 의하면 인천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및 GTX-D 노선 신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

2024년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장 개통되면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3개 정거장이 신설되며 김포공항역까지 약 6분이면 닿을 수 있고,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하면 서울역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이 추진중이어서 서울과의 접근성은 더욱 높아진다. 인천지하철 2호선(검단신도시~일산킨텍스)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원당~태리간 광역도로가 개통 예정이어서 올림픽 대로까지 10분이면 진입하고 검단~경명로간 도로까지 개통되면 공항철도와도 바로 연결된다.

교육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영어마을과 에더블 국제학교가 단지와 맞닿아 있다. 유·초·중·고교도 단지 바로 인근에 들어선다.

'친환경 아파트'라는 평도 있다. 5만5696㎡의 대형 근린공원이 단지와 맞닿아 있어 아파트단지와 바로 이어진 쾌적한 공원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인근에는 계양천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이밖에도 인천지법 북부지원, 인천지검 서부지청 등 제2법조타운과 경찰청, 행정기관 등이 계획돼 있다.

한편 '검단 파라곤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 일대에 마련됐다. 입주는 오는 2022년 6월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 "해외주식 키워드는 '마이스·체인지'"

**삼성증권, 테마·종목키워드 제시**

삼성증권이 올해 글로벌 주식투자의 4대 테마로 '마이스(M·I·C·E)'를, 추천 종목 키워드로는 '체인지(C·H·A·A·N·G·E)' 를 제시했다.

'M·I·C·E'(쥐의 복수)는 거시경제(Macro), 이자(Interest), 중국(China), 선거(Election)의 앞 글자를 딴 키워드다. 삼성증권은 각각의 키워드가 2020년 글로벌 주식시장을 관통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거시경제(Macro)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완화 조짐'을 의미한다. 이자(Interest)는 '하락 일변도에서 안정적인 박스권으로 변하는 장기금리의 추세'를, 범 중화권(China)은 '본격적으로 개방되는 중국의 자본시장과 중국 5G 서비스의 시작'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선거(Election)는 '미국 대선 등 달라지는 세계 정치환경'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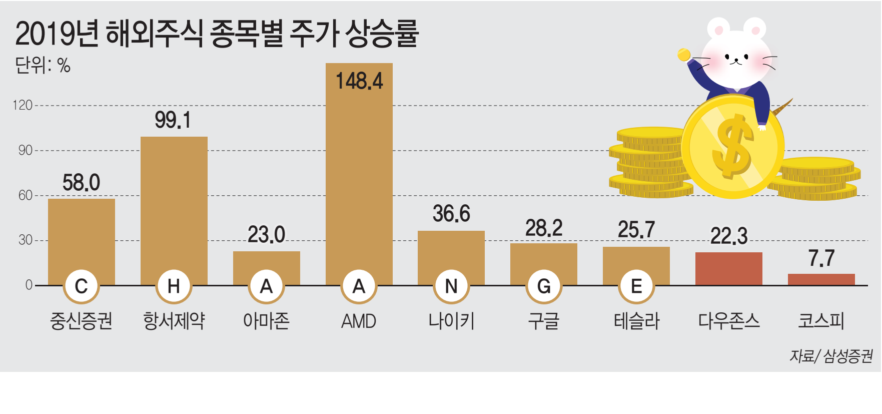
아울러 삼성증권은 4대 테마와 더불어 올해 고수익 추구형 투자자를 위한 추천 주식 포트폴리오 'C·H·A·A·N·G·E'도 제시했다.

'C·H·A·A·N·G·E'는 '2020 라이벌 픽스(Rival Picks)'로 추천한 10종목 가운데 대표 유망 종목들의 알파벳 표기를 하나씩 따서 만든 키워드다. 중신증권(Citic), 항서제약(Hengrui), 아마존(Amazon), AMD, 나이키(Nike), 구글(Google), 테슬라(tEsla)가 그것이다.

모두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로 눈길을 끈다. 내년 글로벌 주식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보다는 시장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삼성증권 측의 설명이다. 'α(알파)'수익은 미국이 주도하는 고부가가치산업과 글로벌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추천 종목의 경우 지난해에도 한 해 평균 주가 상승률이 59.9%로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7.7% 상승한 코스피 지수는 물론 약 22% 상승한 다우존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송태화 기자 alvin@




---

## 개인 순매수에 중소형주 펀드 2% 수익

**주간펀드동향**

**국내 주식형 펀드 0.72% 상승**
**대형주 하락, 중소형주 위주 강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인덱스펀드인 코스피200 위주로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됐고, 중소형주 펀드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12월27일~1월 2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0.72% 소폭 상승했다. 대형주는 하락했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중소형주펀드가 2%가까이 상승한 영향이다.

공모펀드 유형 중 국내주식형 펀드로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한 주간 1조596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순자산은 1조5380억원 늘었다. 특히 코스피 상승에 베팅하는 인덱스코스피200형의 자금 유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펀드는 1.0% 올랐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중국 지역의 펀드가 2.56%로 수위를 기록했다.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경기 부양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해당기간 해외주식형으로 85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전체 순자산은 3290억원 늘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NH-Amundi코스닥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A'(6.86%)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은 전주에 이어 금펀드인 '블랙록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e)'이 6.68% 수익률로 수위에 올랐다.

한편 해당 기간 국내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04% 하락한 2175.1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저가 매수세로 개인은 8465억원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149억원, 2804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0.67%, MSCI 신흥국(EM) 지수는 전주 대비 1.43% 상승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기업공시 663개 판례 분석

**금감원, 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2002년 이후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위반사건에 대한 판례집을 발간해 왔다. 개정·증보된 이번 판례집에서는 신규판례를 추가해 총 663개의 판례를 수록했다.

판례집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의 2권으로 구성됐다.

불공정거래편은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돼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를 추가했다.

기업공시편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를 수록했다.

판례집은 법원, 검찰, 금융위, 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 또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